

트트트 신한속속 201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22
05



- 개교 50주년 기념 'Made in Zero'
- 일반 재정지원대학 선정 총장 특별 기고
- 제2회 NFF 독립영화제 개최
- 에스토니아 탈린 시장단 신한대학교 방문
- 김세영 프로,미래스포츠통합학과
골프전공 교수진 합류

신한대학교 50주년 우표첩 발행
리나시타(Rinacita)교양대학 소개
치기공학과 2020 국가고시 수석 배출
혁신의 DNA' 안익원 교수 인터뷰
'NUMBER 1을 거부하는 ONLY 1' 교육

패션디자인전공 제5회 졸업컬렉션 / 청년일자리센터 - AI 면접 서비스 /
학생상담센터 MBTI 검사 실시 / 신한 장보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 Culture 서평

SHINHAN 50. MADE IN ZERO !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독특'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홍장 강성중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22. 05. 27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김치현 기자

• 디자인 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31 870 3407 • 정가 8,000원

1972 - 2022

Contents

- 01_US, KOREA, SOL, 1010, 599, GX
- 02_이념과 비전
- 04_편집장 논설
- 06_총장 특별기고
- 10_새롭게 시작하는 신한 50주년
- 14_신한대학교 50주년 기념우표철 발행
- 16_에스토니아 탈린 시장단 방문
- 18_제2회 NFF 독립영화제 개최
- 22_ONLY 1 교육을위한 신한대학교의 교육혁신
- 26_교양교육대학 '리나시아교양대학' 소개
- 30_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한 신설학과 개설
- 34_LPGA 김세영프로 미래스포츠융합학과 교수
- 36_'혁신의 DNA'안원익 교수 인터뷰
- 38_패션디자인전공 제5회 졸업컬렉션
- 40_외식조리전공 국제요리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 42_치기공학과 2020 국가고시 수석 배출
- 44_토지행정학과 졸업생,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시험합격
- 46_청년일자리센터 - AI 면접 서비스
- 48_학생상담센터 MBTI 검사 실시
- 50_신한 장보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 52_학교발전기금 기금증서 및 감사패 증정
- 54_뮤지컬, 마리아투아네트
- 56_영화, 별새
- 58_책, 숨결이 바람 될 때
- 60_이모저모
- 64_기부금 현황
- 66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22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1010-599-GX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편집장 논설〉

언택트 시대의 도래, 변화의 중심 信韓

지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언택트(Untact)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우리 모두 '멈춤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제한을 걸어, 우리는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소중한 일상, 문화 등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교육현장 역시 이를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은 비대면 위주의 강의를 진행되면서 학생과 학교 모두 혼란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육방식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당연히 교육의 품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학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한대학교는 현 상황에 따른 발 빠른 대처로 격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한 특독」 201호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대처하는 신한대학교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신한대학교의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유의 깊게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현 편집장〉

〈총장 특별기고〉

꿈에 날짜를 붙이면 목표가 된다
그 목표를 쪼개면 계획이 된다
그 계획을 실행하면 현실이 된다

꿈이 현실이 된다는 말은 참 공허합니다.
이 공허한 말에 누군가가 저렇게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다는 공허한 말에 그럴듯한 설득 논리가 붙었습니다.
꿈에 날짜가 붙는 건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작은 날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입니다.
숫자의 매력은 막연한 걸 명확하게 만드는 재주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3단 논법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이유는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최고의 설득, 최고의 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숫자는 15,000,000,000입니다.

첫 번째 숫자. 15,000,000,000

처음에 말씀드렸던 표현을 잠깐 빌려보겠습니다.
우리 신한대학교는 얼마 전 우리의 꿈에 '숫자'를 붙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3년간 150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150억은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 현실모드로 진입하게 해줬습니다.
우리 신한의 막연한 꿈이 실체가 있는 목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목표를 잘 쪼개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슴 두근거리는 3개년 계획이 멋지게 실행되는 날,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 몇 위, 세계 몇 위 대학이라는
구시대적 숫자의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의 가치 확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재테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150억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라고 생각합시다.
150억은 달콤한 과실이 아니라 치열한 파종이라고 생각합시다.
150억의 미래는 1500억이라고 생각합시다.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베이스캠프가 과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베이스캠프를 떠나야 미래에 도달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2021년 종무식에서 -



두 번째 숫자. 50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번째 숫자는 50입니다.
저는 올해 개교기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50주년이 되는 날에 제 마음속에서 5자를 지울 것이라고.
그래서 50주년을 우리 신한대학교의 0년으로 삼겠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담한 다짐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에는 엄격한 책임과 숭고한 의무가 따르는 법입니다.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혁신의 알맹이를 내놔야 합니다.
변화의 의지가 아니라 변화의 콘텐츠를 생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제로에서 시작하고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입니다.
지난 50년 간 우리가 거뒀던 실패와 성공의 유산들은
우리의 마음속 아카이브에 잘 보관해 둡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함께 '제로 스타트' 라인에 섭시다.
우리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학을 만듭시다.
우리가 다시, 대학을 발명합시다!

세 번째 숫자. 1(하나,One)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 번째 숫자는 1이라 쓰고,
하나라고 읽습니다. 또는 원 팀 이라고 명명합니다.
저와 우리 신한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0과 1은 디지털을 구성하는 숫자입니다.(사실은 신호체계조)
여기서 숫자 1은 전부(全部)를 뜻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1은 '전부'이고 '하나'입니다.
One for All이고 All for One입니다.
저에게는 이 '1'이 150억을 압도하는 훨씬 큰 숫자라고
아니 15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의 지속가능했던 50년을 가능하게 한 것도 '1(하나)'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할 50년을 만드는 것도 1,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1) 된 마음, 원 팀 정신이야말로 신한의 천문학적 자산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개의 '키 넘버(Key Number)'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좌표하고 미래를 규정해 줄 중요한 숫자입니다.
150억. 사실 이 숫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의 탈을 썼지만, 150억은 우리의 땀과 눈물의 산물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벌어놓은 미래이기도 합니다.

50년. 생물학적 나이를 따지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은 없다. 젊은 정치만 있을 뿐이다.'
'늙은 정치인은 없다. 늙은 정치만 있을 뿐이다.'
그 누구보다 대학이 그렇습니다.
대학에게 나이는 없어야 합니다. 대학에게 나이는 무의미합니다.
대학의 운명은 젊은이로 태어나 젊은이로 죽는 것입니다.

1(하나. One). 세 개의 숫자를 말했지만, 주인공은 '1'입니다.
1(하나, 원 팀)은 앞의 두 숫자의 운명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150억을 1500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1500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찰나로 만들 수도 있고, 영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Stronger Together!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한대학교는 지난 8월 말에 최종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3년간 150억을 지원 받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40일 동안 One Team으로 달려온 신한가족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50년은 지도 밖으로 탐험할 대항해의 시대입니다. 그 항해는 아직 해도도 없고, 등대는 더욱 기대 못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모두가 항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그 불확실성의 바다에 배를 띄웠다는 점입니다.

-개교 5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신한50. MADE IN ZERO !

오래된 것이 비워질 때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

0은 무한한 가능성, 궁극적 혁신을 의미하는 아이콘.
신한대 개교 50주년 슬로건, 신한50.Made in 0! 은 오래된 것이 비워질 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로써
지난 50년의 성취를 가슴에 묻고 제로 스타트 하자는 선언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한(信韓), 개교 50주년 기념 'Made in Zer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한인(信韓人) 육성
궁극과 혁신을 의미하는 숫자 0(zero)부터 다시 시작
새로운 시작과 더 높은 도약을 위한 50주년 기념사업단 설립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 “처음에 보잘것없던 피렌체 성당의 대리석이 아름다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는 걸작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몫”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띠고 경기 북부에 자리 잡은 신한대학교는 1972년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을 건학 이념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지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성과 기술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 현대사의 발전과 그 발자취를 함께 해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신한대는 내년 부터 세계 유일의 'Shinhan Micro Degree'라는 혁신적인 학사제도의 운영에 나선다. 'Shinhan Micro Degree'는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실용 학문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대학은 이에 맞춰 전공의 벽을 허물고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 중이다.

이처럼 반세기라는 시간 동안 미래를 꿈꾸며 믿음과 소망으로 기술 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지난 1월 7일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한대학교는 2022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자 변화의 원년으로 삼자는 'Made in Zero'라는 슬로건 아래 다시 한번 다양한 혁신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Made in Zero'는 신한대학교의 50년의 역사에서 숫자 5를 지우고 무한한 가능성과 궁극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숫자 0, zero만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50년의 역사와 영광을 잠시 기억 속에 두고 초심으로 돌아가 도전자의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새기자는 다짐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환으로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은 50주년 기념사업단을 설립하였다. 50주년 기념사업단은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제1캠퍼스에 지하 4층 지상 50층 연건평 3만 평의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개교 50주년 기념관으로 건립되는 이 건물이 완성이 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대학 캠퍼스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건축물로 기록된다. 그리고 단순히 특정 대학의 상징적인 기념관 성격을 넘어 경기 북부의 랜드마크가 되고 나아가 한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개교 50주년 기념관에는 메디컬센터를 비롯해 금융센터, R&D센터, 스타트업과 벤처 취업센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컨벤션홀 등을 입주시킬 것이다. 특히 개교 50주년 기념관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벤처 취업센터의 허브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경기 북부가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와 함께 서울 코엑스와 일산 킨텍스에 집중된 국제 컨퍼런스 기념관 컨벤션홀에 유치해 신한대학교를 세계적인 학술교류의 중심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며, 컨벤션홀은 기업 및 IT 센터들의 교육 및 전시 등 복합적인 공간으로도 활용하며 4차 산업혁명의 클러스터 역할을 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50주년 기념사업단은 학술, 국제 교류, 문화 예술, 출판 등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한인(信韓人)'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화합과 재도약을 다짐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학술 분야에서 국제 학술대회와 단과대학별 학술제를 개최하고 국내 외 학술 행사를 유치하는 등 세계적인 대학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 분야에서도 해외 유명 대학과 글로벌 캠퍼스 연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강성종 총장은 지난 1월 7일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무식 연설에서 “지금의 신한대학교는 지난 50년간 설립자님과 초대 총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조각되기 전 피렌체 성당의 대리석입니다. 이제 이 신한이라는 대리석이 서투르게 조각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아니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극찬을 받는 명품이 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신한인(

信韓人)’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채움이 아닌 비움을 말하는 우리 대학의 50주년 기념 슬로건은 시의적절한 듯합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많은 것을 채워왔습니다. 'Made in Zero' 우리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신한이 Zero는, 우리 대학의 무한한 가능성과 궁극적 혁신을 의미하는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시작의 서막을 알렸다.

<김치현 편집장>



신한대학교 50주년 기념우표첩 발행

- 50년 신한인의 길 '파도를 넘어 희망의 미래로' 주제로 제작



신한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와 미래, 역사와 비전을 담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년 신한인 길, 파도를 넘어 희망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제작된 기념 우표첩은 위기의 파도를 넘어 새로운 미래의 태양으로 떠오르는 희망찬 여명의 순간을 50주년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또한, 파도의 태양, 여명의 순간을 글로벌 이미지와 결합하여 글로벌 거점학교의 비전을 담고 있다.

신한대학교 50주년 기념 우표첩은 특별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색상으로 신한인의 역사를 우표로 녹여냈다. 1960년 재단법인 신홍학원의 설립 역사부터, 2020년 대학 교양 교육 컨설팅 우수개선대학 선정 및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이 되기까지 신한대학교의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신한대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의 향후 50주년으로 이어가는 가교이자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50주년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개교 50주년 기념관 설립을 중심으로 건축, 문화 예술, 홍보 출판, 학술, 상호협력 교류 분과별 세부추진계획을 구성해 대학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대학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건축분과에서는 50주년 기념관과 설립자 동상을 건립해 신한대학교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예술분과는 50주년 기념 공연·행사를 통해 재학생을 포함 전체 동문과 서울 및 경기북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신한대 문화예술'문화를 구축하고, 홍보출판분과에서는 50주년 홍보영상과 기념품을 제작하여 대학의 50년 역사와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 비전을 담을 것이다.

신한대학교는 이 외에도 지역초청세미나와 전국대회 규모의 학술대회, 신한 50주년 단과별 '홈커밍데이' 및 '총동문 후원의 날' 개최를 통해 대의 지역 산업발전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윤지 기자〉



에스토니아 탈린 시장단 신한대학교 방문

-미하일 콜바트 에스토니아 탈린시장 외 7명 방문
-본교 특성화 학과 간 IT, 문화, 교육 등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지난 4월 18일, 에스토니아의 탈린시 시장 미하일 콜바르트를 포함한 초청 방문단 8명이 신한대학교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를 맺는 시간을 가졌다. 에스토니아 탈린 시장단은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위한 상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에스토니아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년 만에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유럽의 IT 최강국으로 꼽힌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북유럽의 실리콘밸리', 'e-에스토니아' 등으로 불리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고 있다. 탈린 시장단은 이번 본교 방문을 통해 한국의 IT 콘텐츠, 4차산업 등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하여 경기도와 탈린시

지역 간 협력 방안 검토 및 신한대학교 관련 학과와 교육 연계 프로그램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에스토니아 '탈린 E-에스토니아' 정보기술연합회와 에스토니아 IT 정보기술 및 개발 투자에 대한 협의를 논의했다.

탈린시 시장단은 18일 신한대학교를 방문하여 태권도 시범 공연을 감상하고 학교에 대한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경기도 북부청사를 방문하여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양 지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한대학교 태권도 교육 융합 전공, 사이버 드론봇 군사학과, IT융합 공학 학부, 미래 스포츠 융합학과 등 본교 특성화 학과 간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미하일 콜바트 탈린시장은 고려인 2세 어머니와 에스토니아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고려인 3세로 에스토니아 전국태권도연맹 회장직을 맡는 등 한국 사랑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하일 콜바트 시장은 에스토니아 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의 태권도를 포함, 다양한 무술과 국방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탈린시 시장단 방문 행사를 통해 국제교류 협력처를 확대하고, 에스토니아 지역 캠퍼스 설립과 현지 교육문화 파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와 탈린시의 지역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신한대학교와 연계한 IT 정보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해갈 예정이다.

〈정윤지 기자〉



Exodus, Made in Zero, 제2회 NFF 독립영화제

- 고난과 위기를 넘어, 모든 것이 가능한 zero에서 시작하는 희망을 주제로
- 신한대학교 50주년 기념, 총 5천만 원 '통 큰 상금'



심사위원

배창호 감독 (적도의 꽃)
이명세 감독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김경형 감독 (동갑내기 과외하기)
이정국 감독 (아들의 이름으로)
유희정 감독 ('커피메이트' 제작총괄)

사회

김경식 (개그맨, 영화평론가)

2022 제 2회 NFF 독립 영화제 시상식

주제 Exodus, Made in Zero
2022년 4월 27일(수) 오후 3시

올해 두 번째로 열린 NFF 독립영화제는 Next-Neo-Naissance Film Festival의 약자로, N은 다음 세대의 Next, 새로움의 Neo, 시작의 Naissance를 의미하며, 이 세 가지 단어에 NFF 독립영화제의 비전이 담겨있다. 제2회 NFF 독립영화제는 신한대학교 50주년을 기념하여 'Exodus, Made in Zero'를 주제로 담았다. 이번 주제는 코로나19와 같은 고난과 위기를 넘어(Exodus), 모든 것이 가능한 Zero에서 시작하여(Made in Zero)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진행되었다.

제2회 NFF 독립영화제는 주제인 'Exodus, Made in Zero'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29초~10분 정도의 길이의 작품을 받아 진행됐다. 참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출품 가능한 이번 영화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장벽 없는 영화제로서 신한대학교가 독립영화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제시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영화제 심사는 심사위원 평가와 유튜브 점수로 이루어져 네티즌의 반응도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신한대학교의 제2회 NFF 독립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는 배창호 감독(적도의 꽃), 김경형 감독(동갑내기 과외하기), 이명세 감독(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정국 감독(아들의 이름으로), 유희정 감독('커피메이트' 제작총괄)이 참가했다.

신한대학교 5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지난 제1회 NFF 독립영화제보다 더 '통 큰 상금'으로 참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총 5천만 원 규모의 상금 중 대상에게 3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제2회 NFF 독립영화제는 국제적으로 진행하여, 해외작품상까지 시상하였다.



지난 2022년 4월 26일에 유튜브 생중계와 동시 진행된 제2회 NFF 독립영화제 폐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성종 총장은 이번 폐회식에서 “제 2회 NFF 독립영화제가 꿈꾸는 길을 이 시대의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꿈과 평화를 전하는 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인사말을 남겼다.

네티즌의 뜨거운 투표 끝에 선정된 제2회 NFF 독립영화제 당선작은 L-ON TV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폐막과 함께 시상이 진행되었다. 네티즌과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은 팀들은 총 열두 팀으로, 그중 대상은 <옛 별>의 왕정민 감독이 거머쥐었다. 작품 <옛 별>은 2130년, 코로나로 인해 화성으로 인류의 대규모 이주가 진행된 상황에서 버려진 노트북에서 옛 별인 지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고난을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0(zero)의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본다면 희망과 잠재력은 그곳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금상은 <윤술>의 권순모 감독이, 해외특별상은 <ESPERANZA>의 Axel Gabriel Ortiz Serrato 감독이 수상했다. 또한, 특별상으로는 작품 <시선>과 <놀이터에서>가 선정되었으며, 본선 진출작 중 7팀이 입상했다. 심사위원을 맡은 배창호 감독은 “열띤 토론을 한 심사였다”며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흡족한 작품을 선정하게 되어 후련한 심정이다”라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제1회 NFF 독립영화제에 이어 더 파격적이고, 화려하게 돌아온 신한 대학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제2회 NFF 독립영화제는 국제적으로 진행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다음 NFF 독립영화제 입상의 기회를 노린다면, 도전해보라. 다음 영화제의 '주인공'은 희망의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바로, 당신이다.

〈정윤지 기자〉



‘NUMBER 1을 거부하는 ONLY 1’ 교육을 위한 신한대학교의 교육혁신

신한대학교 대학혁신본부장 구효진(리나시타 교양대학)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은 과거 세대에 의해 생산 및 축적된 지식을 현재 세대에게 가르치는 활동이었다. 특히 대학교육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누적된 지식을 전공 교육과정이라는 체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산업을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대학은 전공이라는 틀을 통해 산업과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성장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많은 인재를 길러냈으며 그들을 통해 후학을 다시 양성하는 선순환적 구조의 대표적인 조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구글을 통해 ‘대학’, ‘대학교육’을 검색하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학령인구 감소’, ‘대학 위기’, ‘대학평가’, ‘디지털 대전환’, ‘교육혁신’ 등이다. 또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을 같이 검색하면 ‘융합’, ‘창의’, ‘혁신’, ‘혁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슈로 제시된다. 해당 키워드에서 보듯 현재 대학이 처한 상황은 그리 낙관하지 않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학이 갖는 동일한 문제이며 급변하는 산업과 사회는 대학에게 무언가 변화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혁신과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미래의 일자리를 연구하는 Mussomeli, Gish, Laaper(2016)은 4차 산업혁명의 문제는 단순한 고용증가감소 혹은 새로운 직무에 대한 습득 문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국내의 많은 연구와 보고에서도 현재 MZ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새벽마다 쏟아지는 대학교육에 대한 자료와 전 세계 대학들의 게시판들을 보면 답은 아주 명확해진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누군가 잘 개발해 놓은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융합능력이다. 또한, 다양한 기술을 생활에 적용해 보고 활용해 보는 경험의 누적치와 현장을 누가 얼마만큼 더 경험해 봤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자신감과 일정한 실패를 버틸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이 베풀주는 것이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2021년 전국 197개 일반대학은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를 받았고 우리 대학은 수도권 62개 대학 중 10위 안에 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22년은 우리 대학이 개교 5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며 이를 계기로 대학의 모든 역량을 학생에게 유익한 교육과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으로 집중하는 중요한 모멘텀이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혁신이 진행 중이며 혁신의 비전을 ‘기본에 충실한 대전환형 인재로 하고 키워드로 MULTI형 인재, 마이크로 디그리, TETRIS CLASS, SELF DESIGNED CLASS, SOUP 4.0을 제시하였다.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혁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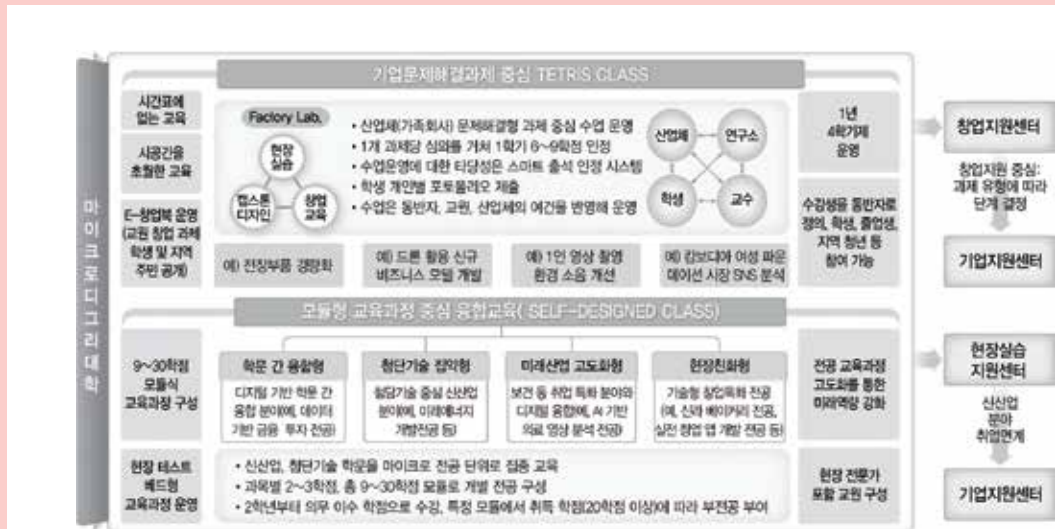


첫째, 우리 대학은 ‘기본에 충실한 대전환형 인재양성’을 위한 방향을 MULTI-UP으로 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모델을 구축하였다. MULTI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우리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MULTI Tasking형 인재이다.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일인자보다도 잘 응용하고 적용하는 ‘ONLY One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 목표이다. 이에 따라 교양교육의 목표를 THE Generalist 양성으로 하였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1인 1 스포츠 & 1 예술적 감각’ 함양을 목표로 전제적인 교양교육 개편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공교육의 목표를 THE Specialist 양성으로 하고 전반적인 교육의 방향을 현장밀착형으로 운영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중심 교육의 실천을 위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역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THE Transformist를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단과대학이 현재 우리 대학 내 설치되어 있으며 22학번 학생들이 2학년이 되는 23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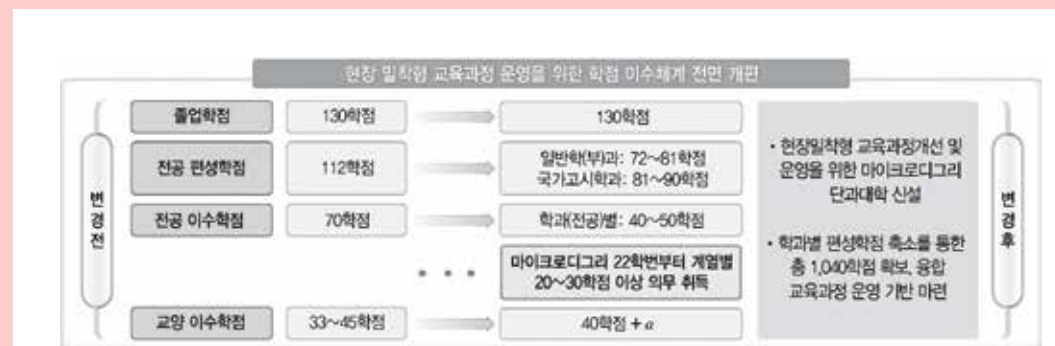
■ ONLY ONE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고도화

과정 [Course]	M 첨단산업·신기술 중심 교육과정 Major in New Technology	U 교육과정 혁신 Uniqueness in Education	L 현장중심 태스크베드 교육 Learning in Taskbed	T 취업 역량형 주문식 교육 Trust by On-demand	I 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 Industry in Class	ICC 특화분야 연계
마이크로 디그리 (Transformist)	첨단기술 집약형 · 첨단산업/신산업 혁신 기술 미래산업 고도화 과정 · Digital Transformation 기반 전공 고도화	산학모형 인증제 · 영커기연 연계 모듈형 교육과정 인증 문제해결 능력/현장 실무 역량 성취도 기반 인증	TETRIS CLASS 학문 간 융합 과정 · 전공 융합/가치 창조/ 창의 역량 기반 교육 과정	SELF-DESIGNED CLASS 현장친화 과정 · 산업 수요 기반 현장 역량 강화 교육과정 · 채용역량형 실무 교육 과정	TETRIS CLASS · HUPIC 캡스톤 · 기업 제시 현장문제 해결형 창의 교과	취업 · 취업진로 맞춤형 교육 계약형 현장인턴십 창업 · 기술아이디어 창업교육 관련/ 사업관리 교육
전공 (Specialist)	신기술 핵심 교과 · 신기술 중심 전공 핵심 교과	전공교육과정 인증 · 문제해결 과정/방법 · 신기술 전공 핵심역량 성취도 기반 인증	현장실무 강화교과 · 특화분야 인증/평가 실용교과 · 기업전문교수 필수 참여 교과	현장실습학기제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Micro-Lab 캡스톤 · 전공 특화 분야 문제 해결형 교과	현장밀착 전공기술 교육
교양 (Generalist)	과학과 기술융합 영역 · 컴퓨터과학의 이해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기술 디자인 평정	3C 융합역량 교과 인증제 · 핵심역량 성취도 기반 교과 단위 인증	글로벌 기업가정신 영역 · 벤처창업과 경영 · ESG 경영의 이해 · 지식재산권의 이해	세계시민과 사회적 가치영역 · 진로와 미래설계 · 21세기 기업의 인재상	General Class 캡스톤 · 사회문제 해결형 사고력 중심 융합 교과	취창업 기초역량 교육

둘째, ‘기본에 충실한 대전환형 인재양성’의 실천을 위해 기존의 전형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형인 교양과 전공의 이원화된 체계를 교양, 전공,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로 개편하였다. 마이크로 디그리가 우리 대학에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미 타 대학들은 10년 전부터 전공 간 융복합 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전국 대학 최초로 마이크로 디그리를 교양대학 수준의 단과대학으로 신설하고 22학번 학생들이 2학년이 되는 23년부터 의무적으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마이크로 디그리는 다른 대학하고는 운영 단위, 체계, 내용 및 주체적인 측면에서 다른 대학하고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한대학의 마이크로 디그리는 학생들이 직접 제안하고 설계하는 Self-Designed Class와 현장의 문제를 수업을 통해 직접 해결해 보는 고도화된 캠퍼스 디자인인 TETRIS CLASS를 혁신 교육으로 제시한다. 특히, TETRIS CLASS는 기존 대학교육이 가지고 있던 정형화된 시간표의 개념을 전부 뒤집은 교육이다. 교수와 기업이 공동 실시하는 연구과제에 학생이 직접 동반자로서 참여하고 모든 과정을 수업으로 인정해 주는 교육이다.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수와 학생이 제시하는 과제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라 최소 6학점에서 최고 9학점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수업 운영 방식 및 내용은 교수, 산업체, 동반자인 학생이 정하게 된다.



셋째, 교수들이 제자들을 '기본에 충실한 대전환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학과마다 전공 개설학점을 대폭 축소하였고 마이크로 디그리를 중심으로 졸업학점 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해당 내용은 앞서 여러번 언급했듯 22학번 학생들부터 적용이다.

넷째, 우리 대학은 COVID19 이전인 2019년부터 '10인치 속 화면 속 세상에서 가장 작은 대학이자 가장 큰 대학'이라는 슬로건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운영 모델이자 플랫폼까지 포함하는 SOUP을 준비했고, 20년과 21년 팬데믹을 격으면서 운영 방식에 대한 고도화를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 SOUP을 단순히 비대면 수업과 연계한 ZOOM 혹은 WEBEX로 정도로 인식할 수 있으나 신한대학교의 SOUP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듯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의 비전이다. 우리 대학은 SOUP을 통해 현장과 강의실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유익한 교육을 위해 현장이 강의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장이 강의실이 되고 강의실이 현장이 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특히 마이크로 디그리의 TETRIS CLASS와 연계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단순한 디지털화에서 시작된 3차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이 결합된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지향하는 거침없는 전환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기업이 아무리 혁신적인 방법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학의 정체성 확보와 관련 방향성에 대한 설정이며 더 중요한 핵심은 학생들이 세상으로 가지고 나갈 역량과 자신감이다.

이것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현저하게 높으며 대학의 등급에 따라 직업군이 결정되는 구조의 고등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의 발전과 직무의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인재상으로 살펴볼 때 앞으로는 누가 대학의 들어오느냐 보다는 들어온 학생에게 어떻게 필요한 역량을 제시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지난 50년을 넘어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준비와 과정에서 학생에게 유익한 그리고 기업이 선호하는 교육이 되도록 현신을 방향을 잡고 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며 학생들은 할 일들이 더 늘어나고 교수들은 더 많은 수업준비와 현장밀착형 교육을 위해 발로 뛰어야 하며 행정직원들은 학생이 설계하는 교육과정이 늘어날 수 록 고도화된 행정지원을 위해 바빠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이 선도하는 기본에 충실한 성공하는 대전환형 인재에 더 가깝게 갈 것이다.

교양교육대학, 신한대에 ‘리나시타교양대학’이 뜬다

리나시타교양대학 류현욱 학장,
“무한한 가능성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하겠다”

신한대학교 교양교육대학은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명칭을 ‘리나시타교양대학’으로 변경했다.

‘리나시타(Rinascita)’는 ‘르네상스(Renaissance)’의 이탈리아어로, ‘재생(재탄생)’이라는 의미다. 리나시타교양대학은 14~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학예 부흥 운동(르네상스)의 정신을 계승하여, 당시 인문주의자들의 전인교육 목표였던 ‘보편인’과 ‘교양인’을 양성하고자 새롭게 출발했다. 이때 ‘보편인’은 신체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의 균형 있는 인재상을 의미하며, ‘교양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바탕으로 사회정서역량을 겸비한 인재상을 의미한다.

리나시타교양대학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인 ‘융합적 식견’과 ‘바른 인성’을 겸비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리나시타교양대학은 네 가지 핵심 역량과 핵심 교양을 기준으로 교양교육 체계를 개편했다. 핵심 역량에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는 ‘봉사역량’, 타인과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역량’, 지식정보를 융합하여 활용하는 ‘창의역량’, 스스로 전문 지식을 학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역량’이 있다. 핵심 교양으로는 국경을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 삶에 대한 통찰력 함양을 위한 ‘인문학적 소양’, 잠재된 창의력 발현을 위한 ‘예술적 감각’, 진취적 자기 탐색을 위한 ‘건강한 신체’가 있다.

리나시타교양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2020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 개선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신한대학교는 지난 평가에서 교양교육 개선 의지, 컨설팅 이후 개선 성과, 우수 개선사례의 효과성 및 지속성, 타 대학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한 평가

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또한, ‘S.O.U.P(Shinhan On-offline University for Performance)’을 교양 교육과정에 과감히 적용하여 대학 혁신의 기틀을 다졌다. ‘S.O.U.P’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개발한 교육 혁신 모델로, ‘어디든 강의실이 된다’라는 개념을 지닌다. ‘S.O.U.P’은 현장 중심의 학습경험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원격교육이 가진 소통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방식(online) 기반의 하이브리드(Hybrid) 러닝을 지향한다.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류현욱 학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하겠다”라며 ‘리나시타교양’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류 학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는 정답이 없는 수 많은 질문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리나시타교양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많은 플랫폼과 정보 속에서 처음 맞이하는 도전의 순간들에 창의적, 융복합적 사고로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조희자·김민성 기자〉



‘리나시타(Rinascita)’교양 대학 소개

강석만 교양교육연구센터장 기고문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은 2021년 4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지식·기술·소양을 겸비한 교양인’ 양성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리나시타교양대학의 리나시타(Rinascita)는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 유럽에서 일어난 학예 부흥(學藝 復興) 운동인 르네상스(Renaissance)의 정신을 현대 교양교육의 정신으로 새롭게 계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은 신(神) 중심, 내세 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중세 시대의 압박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인 인간의 자아실현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인간의 삶의 가치를 표방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의 혁신은 과거 인간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리나시타교양대학은 기계와 구분되는 인간다운 삶

을 신한대학교의 4대 핵심 역량인 봉사·소통·창의·도전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 인간은 기계와 달리 함께 모여 사회를 구성합니다. 원시시대의 인간은 씨족과 같은 작은 단위의 사회인 군락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우리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다양한 인종, 문화, 계층과 공존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소양은 필수적 역량입니다. 이에 우리 리나시타교양대학은 세계시민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의 봉사역량을 함양합니다.

둘째, 인간은 기계와 달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빅데이터 기술, 머신 러닝 등 기계의 정보처리 기술은 인간의 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계의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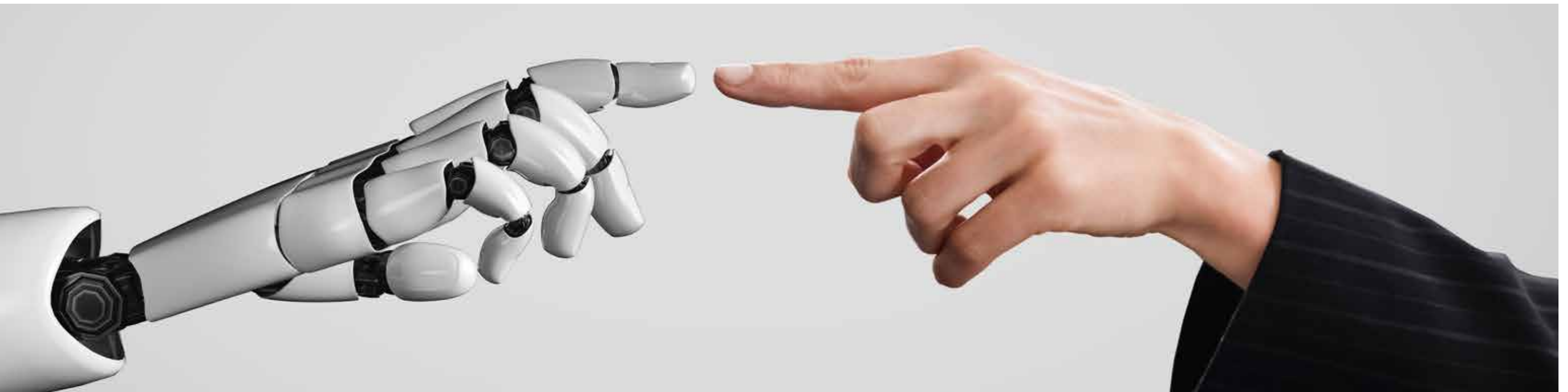
가 고도화되더라도 인간의 뇌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만이 가진 성찰 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아닙니다. 이에 리나시타교양대학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인문소양교육을 통해 소통역량을 함양합니다.

셋째, 인간은 기계와 달리 예술적 창조활동을 합니다. 때때로 예술 활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이는 정해진 프로그래밍에 따라서만 결과를 산출해내는 기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 고유의 활동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잠재된 창의력 발현을 통한 심미적 창조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리나시타교양대학은 우리 학생들의 잠재된 창의력 발현을 위한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역량을 함양시킵니다.

넷째, 오직 인간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환경을 뛰어넘는 도전을 추구합니다. 다른 존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계와 달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신을 관리하고 발전시켜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관리 및 도전의식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리나시타교양대학은 진취적 자기탐색과 도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나시타(Rinascita)는 문자 그대로 재탄생(Rebirth)을 의미합니다. 오랜 입시교육에서 이제 막 벗어나 대학이라는 세계를 통해 새로운 성인으로 재탄생하려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무한히 신뢰하고, 지적·도덕적·사회적 역량을 균형있게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나시타교양대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교육연구센터장 강석만 교수〉





형사사법 공무원 양성의 메카, 경찰행정학과

사회적 흐름을 겨냥한 신한대학교의 또 다른 도전!

체계적 지원으로 형사 기법 전문가를 양성, 사회 안전을 추구하는 ‘경찰행정학과’
골프 산업을 이끌 차세대의 ‘미래스포츠융합학과 골프전공’
MZ세대의 열망과 열정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 ‘미래스포츠융합학과 e-스포츠전공’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가 세 개의 학과를 신설하였다. 이는 경찰행정학과, 미래스포츠융합학과 골프전공과 e-스포츠전공으로 미래 사회의 산업과 안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형사사법 공무원 양성의 메카, 경찰행정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미래사회의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해결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경찰행정학과가 증대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 분야 역시 경찰공무원과 형사사법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 공기업 및 기업체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에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예방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분야의 공무원을 양성한다. 학업 목표는 경찰직, 검찰직, 법원직, 교정직, 보호관찰직 등에 종사할 공공 인재와 민간경비 분야에 종사할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재학 중 공무원 시험 합격률, 졸업 후 관련 분야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경찰행정학과는 2021년 4월에 신설되었으며, 경찰학, 범죄학, 헌법, 형사법, 수사학 등 전문지식 함양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 출제 위원급 교수와 경찰실무 경험을 갖춘 교수진을 확보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 특히 고시반 운영,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 경찰서 등과 연계한 경찰실무 능력 함양, 체력 증진 및 경찰공무원 가산점 취득을 위한 태권도 교육, 중앙경찰학교 견학 등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학 중 공무원 시험 합격률 최우선 목표로 지도한다.



골프 산업의 차세대 리더 양성, 미래스포츠융합학과(골프)

경찰행정학과 이현정 부교수는 “형사사법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체계적 지원으로 학생의 청운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고, 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경찰 인력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성 및 전문성을 갖춘 형사사법 공무원>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청운의 꿈을 실현하길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골프 산업의 차세대 리더 양성, 미래스포츠 융합학과(골프)

한국의 골프 수준과 문화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골프 산업 분야에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글로벌 인재가 중요해지고 있다. 신한대학교 미래스포츠융합학과 골프전공은 다양한 분야의 골프 전문 인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골프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려 한다.

골프전공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골프 산업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융합형 전문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특히 한국 골프계 국가대표 선수인 양수진, 신다빈, 김보아, 박민지 등을 배출한 김옥자 학과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교수진들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TPI(골프트레이닝), GCA(골프피팅), 트랙맨/K-VEST(스윙분석), GCSAA(골프장 관리) 전문 캐디, 심판 관리 등 골프 산업의 분야별 글로벌 자격증 취득 과정과 연계된 실무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또 골프과학과 산업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지식/경험을 위해 해외 전지훈련과 미국 PGA 용품 박람회, PGA 투어 등 다양한 골프 선진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넓은 지식과 발전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투어 프로 시드권 획득자와 프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우대할 계획이며, 신한대학교 총장 명의 중·고등학교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선수 영입 및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계획하고 있다. KPGA, KLPGA 프로 선수를 배출하고, 일본, 중국, 미국 등 타국으로 진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대학의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대 맞춤형 인력양성, 미래스포츠융합학과(e-스포츠)

미래스포츠융합학과 김옥자 학과장은 “미래 스포츠를 꿈꾸고 연구하는 학생들이 골프의 과학적 이해를 통해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스포츠산업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미래 스포츠 산업을 이끌 전문가 및 지도자를 육성하는 우리 신한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체육의 메카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한대학교 미래스포츠융합학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대 맞춤형 인력양성, 미래스포츠융합학과 (e-스포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최신 트렌드 및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는 그들은 ‘e-게임’ 또는 ‘e-스포츠’와 같은 단어에 흥미를 느낀다. 사회는 e-스포츠에 대한 열망과 열정,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들의 특성에 맞춰 이와 관련된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

신한대학교 미래스포츠융합학과 e-스포츠전공은 e-스포츠와 관련된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e-스포츠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한다.

전공역량을 습득하기 위해 직업소양,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e-스포츠 전술, 코칭 및 매니지먼트, e-스포츠 미디어 제작/편집/방송, e-스포츠 기획/해설/리포팅/비평, e-스포츠 운영 및 문화관광 산업 마케팅 등의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비교과를 추가하였으며, 언어교육, 학술제, 현장실습 및 인턴십, 전공 내 micro-리그 운영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스포츠융합학과 김옥자 학과장은 “더 큰 꿈을 향하여 더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e-스포츠전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그 확신을 만들어 봅시다”라며 전공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IT산업의 발전 속에서 e-스포츠의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4억 1000만명 (2020년기준)의 관중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1년 예상 총 매출액은 약 11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e-스포츠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분야는 동트는 새벽에 길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있는 듯 없는 듯 고민이 들겠지만, 우리가 방향을 알고 철저히 계획했고 실행했다면 분명 그 앞에는 우리가 원하던 그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하민 기자〉



‘기적을 쏜다.’ LPGA 김세영 프로, 신한대학교 미래스포츠융합학과 골프 전공 교수됐다

KLPGA & LPGA 통산 17승 ‘기적, 또 기적’의 김세영 선수 신한대 부임
4차 산업 시대 스포츠 산업을 선도할 후학 인재 양성
미래 체육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신한대학교의 첫걸음



신한대학교 미래스포츠융합학과는 골프 전공에 LPGA에서 활약 중인 김세영 선수를 신임교수로 채용했다. 김세영 교수는 LPGA(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에서 활약하는 메디힐 골프단 소속 프로 골퍼로, 2006년 제30회 한국 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최연소 우승으로 프로 경력을 시작하여, 2021년 개최된 제32회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종목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력이 있다. 그의 주요 경력으로는 KLPGA(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통산 5승, LPGA 통산 12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 대한골프협회에서 다수 우승 경험을 가진 유능한 선수이다. 현재 김세영 선수는 LPGA 랭킹 7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특유의 도전적인 경기력으로 극적이고 놀라운 우승을 다수 차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는 빨간 바지의 마법 소녀, ‘기적, 또 기적’이라는 수식어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대학교가 김세영 프로를 새 식구로 맞이한 것은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이라는 신한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세계 속의 대학’이라는 목표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신한대학교는 종합대학으로 출범한 이후, 세계화와 미래 시대에 걸맞는 기술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교육’을 위한 ‘우수한 교원’의 확보는 신한대학교가 추구하는 발전의 이상향인 셈이다.

김세영 교수가 새롭게 소속된 신한대학교 미래스포츠융합학과는 지난 2021년에 신설된 학과로, 미래 환경의 글로벌 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지도자 양성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실무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김 교수가 소속한 골프 전공은 골프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타 교육기관과 차별성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TPI(골프트레이

닝), GCA(골프피팅), 트랙맨/K-VEST(스윙분석), GCSAA(골프장 관리) 전문 캐디, 심판 관리 등 골프 산업 분야의 글로벌 자격증 취득 과정과 연계된 실무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우수한 교원과 인재 확보를 위한 신한대학교 미래스포츠융합학과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신한대학교는 올해부터 투어 프로 시드권 획득자와 프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우대할 계획이며, 신한대학교 총장 명의 중·고등학교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선수 영입 및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미래스포츠융합학과 김옥자 초대 학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스포츠 산업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체육의 메카로 신한대학교 미래스포츠융합학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라며 학과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신한대학교 미래스포츠융합학과 골프 전공은 미래 체육교육의 중심으로 뻗어나갈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해에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실기우수자 전형을 통해 1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기적을 쏜 선수’ 김세영 교수의 영입으로 첫걸음의 의미를 더했다. 실전 골프 필드에서 김세영 교수가 쏘아 올렸던 기적의 샷들처럼, 앞으로 김세영 교수와 신한대학교 미래스포츠융합학과가 쏘아 올릴 ‘기적’의 행보가 기대된다.

〈김민성 기자〉

LPGA 통산 12승	2020	-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
		- 펠리컨 위민스 챔피언십 우승
	2019	- 메디힐 챔피언십 우승
		- 마라톤 클래식 우승
		-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
	2018	- 손베리 크릭 LPGA 클래식 우승
KLPGA 통산 5승	2017	-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우승
		- JTBC 파운더스컵 우승
	2016	- 마이어 LPGA 클래식 우승
		- 퓨어 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 우승
	2015	- 롯데 챔피언십 우승
		- 블루베이 LPGA 우승
대한골프협회 우승 다수	2014	-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 MBN 여자오픈 우승
	2013	- 메트라이프 한국경제 제35회 KLPG 챔피언십 우승
		- 롯데마트 여자 오픈 우승
		- 한화금융 클래식 우승
	2009	- 아시아태평양 국가대항전 퀸시리킷컵 단체전 우승
		- 전국체전 개인전, 단체전 우승(2관왕)
	2006	-- 제30회 한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외 다수 우승

별첨1) 김세영 교수 대회 경력 (통산 17승)

‘혁신의 DNA’를 캠퍼스에 이식하다

신한대학교 안원익 교수 인터뷰



2022년에 새로 부임한 안원익 교수는 신한대학교의 혁신과 변화를 더욱 가속하기 위하여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교수로 부임하기 전, 혁신 기업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에서 25년간 휴대폰 관련 최첨단 기술 개발에 헌신했다. 그는 한결같은 태도로 항상 최고의 제품을 추구하는 개발자였으며, 동시에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와 같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국내외 여러 조직들과 협력하여 ‘혁신’을 정의하고, 서로 연결시키며 발전하는 일을 맡아왔다.

더 나아가, 안원익 교수는 IT기술 개발과 기업 혁신을 통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업계 1, 2위를 다투는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인물 중 한 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뛰어난 개발자이자 혁신적인 기술 경영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신한대학교에 부임했는지, 신한대학교와 학생들의 미래에 어떠한 혁신을 제공해 줄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안원익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Q1: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일부터 신한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안원익입니다. 저는 신한대학교의 특별채용을 통해 이곳에 왔고, 현재 리나시타교양대학에서 “기술의 진화와 파괴적 혁신”이란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수로서 교과목 강의는 처음이라 좀 어색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과 경영을 통해 삼성전자의 변화와 혁신을 일궈왔던 엔지니어이자 기술 경영인이었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다시 신한대학교에 이식하고자 하는 교수입니다. 초기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은 세계 시장 내에선 매우 미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밀려났지만 당시 글로벌 탑은 노키아였고,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가 매우 컸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매 순간 어려운 과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년 조직과 일하는 방법이 개선되었고,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이 보강되어 효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한 방향으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에 열정적으로 동참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신한대학교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Q2: 신한대학교에 오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2: 우연한 기회에 소개로 강성종 총장님을 만나 신한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 변화, 미래에 대한 총장님의 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그러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역시 빠르게 변신하며 성장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기회로 보고, 대

학 교육의 조직, 프로세스, 운영에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더 나아가 세계로 진출하는 신한대학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비전과 혁신에 대한 갈망은 제가 기업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혁신들과 일맥상통하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같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가슴 뛰는 비전이라고 생각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Q3: 신한대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3: 우선은 강의 준비도 해야 하고, 대학의 시스템과 프로세스, 운용 가능한 리소스 등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 외부의 지역 사회, 여러 기업들, 관련 공공 기관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며 어떠한 미래를 설계해 가야할지 의견을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혁신본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혁신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도전인 ‘마이크로디그리 학점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실험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잘 발굴하고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디그리 서비스의 기능과 경험이 개인화되고 최적화되어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학교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자원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같이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삼성전자는 특정 개인 한사람이 혁신과 발전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조직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한 방향으로 달릴 때 그 결과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조직과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하고 협력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커다란 바퀴를 처음에 돌리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바퀴를 굴리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굴리기 시작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Q4: 신한대학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A4: 총장님이 공유해 주셨던 비전과 유사하지 않을까요? 즉,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개인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교육의 차별이 없으며, 누구나 쉽게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빠르게 습득하여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 교육 체제로 빠르게 전진하는 대학,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선도적인 대학이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한인들은 국경을 넘어 도전의식과 열정이 높은 인재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진출하는 무대도 전세계 어디나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Q5: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을 위해 신한대학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A5: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혁신과 변화는 어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큰 바퀴를 처음으로 굴리기 위해서는 대학의 많은 부서들, 교수님들, 학생과 직원들 그리고 외부의 공무원, 기업인 등 많은 부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작이 매우 어렵지만 방향 설정이 잘되어 있으면 해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과 변화를 실천함에 있어서 조직과 많은 분들이 혁신의 주체임을 인식하시고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Q6: 마지막으로 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A6: 호기심은 모든 일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동기를 부여하는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어느새 열정을 장착하고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호기심은 여러분을 변화하는 주변 세상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꿈꾸고 싶은 것을 능동적으로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것이 본인 자신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주도적인 삶을 살 때 세상에서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변화하는 삶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변화는 두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즐기는 자를 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변화와 혁신의 열매는 그 어느 것 보다 달고 보람될 것입니다. 늘 호기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변화를 꿈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성 기자〉



‘ATTUNE’ 나와 세상과의 조율을 말하다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제5회 졸업컬렉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디자인으로 풀어낸다.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패션쇼의 영상화를 구축

2021년 6월 7일 교내 원형극장에서 올해 다섯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의 졸업패션쇼 영상 촬영이 진행되었다. 이번 졸업컬렉션의 주제는[ATTUNE]라는 타이틀로 조율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하나의 타이틀로 학생 개개인의 경험과 기억들로부터 끌어낸 영감을 바탕으로 한 디자이너로서의 취향과 더불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디자인으로 풀어냈다. 이를 통해 표현된 디자인들은 곧 디자이너로 발돋움할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예비 졸업생들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이자,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조율해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던진다.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김서룡 교수, 신유지 교수, 한왕모 교수와 4학년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낸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제5회 졸업컬렉션은 남성복, 여성복 각각 27벌씩 총 54개 착 장의 디자인에 각각의 경험과 기억을 녹여냈다. 이는 독특한 컨셉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신한대학교 모델 콘텐츠 전공의 재학생 모델들과 국내 모든 패션 컬렉션의 메이크업을 책임지는 오민 크리에이티브 팀, 패션 광고 분야의 전문 촬영팀 굿필름과 함께하여 기존 대학의 졸업패션쇼와 차별된 프로페셔널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졸업컬렉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과정은 3월부터 들어섰다. 타이틀 [ATTUNE]에 관해 김정우 패션디자이너 전공 졸업위원장은 “말 그대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배우거나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했거나 흥미가 느껴진 부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감으로 각자 정말 많은 분위기와 다양한 테마들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저 같은 경우는 액션페인팅과 예술 작품들을 좋아하여 옷에 붓고 뿌리고 그려내는 방식으로 나타냈다. 다른 누군가가 보아도 누구의 옷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는 옷을 만들었다”며 자신이 [ATTUNE]을 디자인으로 풀어낸 방식을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패션쇼를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졸업컬렉션에 참여한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인 것 같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의 차이는 크기 때문이다. 또 쇼에서 보여지는 웅장함은 사실 그 장소에 있는 사람만이 알 것이다. 영상으로 차마 담기지 않는 그 여운과 긴장감이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흥분감을 일깨워 준다. 영화 ‘크루엘라’처럼 옷에 정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직접 옷을 제작해서 더 디테일하고 웅장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들이, 영상의 제약을 받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김정우 졸업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에서 진행된 졸업컬렉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론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패션계도 빗겨 갈 수는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패션쇼 형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기존에는 대면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위주였던 패션쇼의 형식이 현재는 온라인과 영상으로 대체되어 진행된다. 차차 비대면 형식에 적응한 패션쇼가 자리를 잡아가며 현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의 졸업패션쇼 역시 이에 따라 기존 형식의 패션쇼의 틀을 벗었다.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패션쇼의 영상화를 구축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를 변형하였다.

김정우 졸업위원장은 “패션디자이너는 특성상 실제로 옷을 만들고 그 옷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번 졸업컬렉션은 패션쇼를 진행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연출들을 모두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 정신 없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개개인마다 다른 경험을 쌓아왔고 느껴왔기에 다양한 작품들이 나온 것 같았다. 그렇기에 졸업컬렉션을 저 또

한 재미있게 준비한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간 것 같다.”라며 졸업컬렉션을 끝마친 소감을 표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더 훌륭한 결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졸업컬렉션을 준비하며 비록 힘든 부분도 있었고 앞서 이야기했듯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로 원하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 색다른 방식으로 준비한 컬렉션이기에 기억에 남은 더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기뻐다. 앞으로 있을 다양한 대회, 작품전 등에서 신한대학교의 후배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좋은 추억,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가 더 많은 기대치를 지닐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 디자인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성복 디자이너 김서룡 교수의 지휘 아래 국내 유일 남성복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가치와 문제를 고민하는 창의 융합형 디자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조수빈 기자〉





요리에 ‘애정’을 담다. 외식조리전공, 국제요리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2021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금, 은상 거두어
-“애피타이저, 메인, 디저트까지 각자 맡은 요리에 최선을 다했다”

신한대학교 외식조리전공 학생들이 2021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라이브경연(코스/ 단품) 부문에서 금상 및 은상을 거두었다. 경연대회는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4일간 개최되었으며, 대회에 참가한 총 10명의 신한대학교 외식조리 학생들이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상을 수상한 팀은 팀장 전진일, 허서윤, 조현아, 정찬희, 윤형근 총 5명으로 이루어진 ‘shape of flavor’이다. 맛의 형태로, 맛을 잡아가며 한 접시 한 접시에 팀을 생각을 담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진일 팀장은 “맛 이외에도 플레이팅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까지 신경 쓰자는 의미와 풍미 맛 등의 미각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flavor 이 팀명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라며 팀명의 뜻을 이야기하였다. ‘shape of flavor’의 수상작은 이렇다. 먼저 애피타이저로는 참외를 이용해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낼 수 있는 참외 가스파초와 새우 테린에 간장 튀일과 마늘 칩을 이용하였다. 메인은 허브 버터와 도미 스테이크로 화이트 더블앙 소스와 게살 크로켓을 곁들이고 가니쉬로 미니 캐롯, 단호박, 아스파라거스로 장식하며 보다 입체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디저트는 망고 요거트 무스케이크로 제철 오렌지와 카다이프를 곁들인 것이 특징이다. 디저트 같은 경우, 제습제를 준비해 대회 당일 습한 날씨에 설탕이 녹는 것을 방

지하였다. 6월 6일 대회를 기준으로 한 달 가량의 준비기간을 가졌으며, 넉넉한 준비기간을 가지지 못한 만큼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연습량의 시간을 늘렸고 계속해서 레시피 수정을 거쳐 수상작이 완성되었다. 전진일 팀장은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학교 조리실에서 주 3회 연습을 하며 부족한 부분은 개인 연습으로 보완해 나갔다. 재료 준비 같은 경우, 보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발로 뛰어 발주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애피타이저, 메인, 디저트까지 각자 맡은 요리에 최선을 다했다. 어느 하나 특정 지을 수 없이 모든 메뉴에 애정을 쏟았다. 모든 요리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한 가지씩은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애정을 쏟아 요리했기에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전진일 팀장은 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또 “개인이 아닌 단체로 참가하는 대회이기에 팀원 모두 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자신이 맡은 요리에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했다. 팀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대회를 준비하였다. 팀원 간의 믿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팀 분위기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팀 ‘shape of flavor’는 1학년들의 어린 학생들로 구성된 팀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맛과 조리 실력으로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았다. 전진일 팀장

은 “코로나 19로 인해 팀원을 모으는 것 부터 어려움의 시작이었다. 대회가 다가올수록 높아가는 밤샘 작업으로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이뤘기에 그만큼 뿌듯함이 따른다. 팀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묵묵히 도와주던 팀원들의 덕이 큰 것 같다”며 마지막으로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신한대 조리학과 학생들 모두 좋은 결과와 발전을 이뤘으면 한다. 신한대학교 외식조리학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이야기했다.

은상을 수상한 ‘어우렁더우렁’은 이은혜 팀장, 이태영, 이세건, 전민지, 남궁은영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다. ‘어우렁더우렁’의 수상작으로는 먼저, 토마토 살사를 곁들인 연어 큐브와 장미 폼소스로 애피타이저를 만들어 냈다. 메인은 호박꽃 튀김과 어브 버터를 곁들인 안심스테이크를 선보였다. 디저트는 아카시아꿀을 이용한 리치 무스케이크와 라임 민트 소르베이며 분자조리를 이용한 수비드 기법을 사용하여 심사위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신한대학교 외식조리 전공은 이번 2021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도 그렇듯, 매년 각종 국제요리대회에 참가하여 금, 은상 등 각종 상을 휩쓰는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화된 전공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수진과 산업체 특강 등의 우수한 교육과정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대형 외식업체와 식품회사, 삼성 웰스토리, 롯데호텔, 조선호텔 등, 작년 졸업생 71%의 취업률로 명실상부한 취업 명문 학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회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이번 국제요리대회. 학생들이 구상한 작품 준비에 열정을 쏟았고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지도와 함께 학생들을 지지한 신한대학교 외식조리전공 교수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번 국제요리대회 수상으로 신한대학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을 만들어준 외식조리전공 학생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 조수빈 기자 >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국가시험 수석합격자 배출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에 경사가 났다.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는 2020년 11월 28일 치뤄진 제48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서 수석합격자를 배출했다. 주인공은 치기공학과 17학번, 심형인(2021년 졸업) 졸업생이다. 심형인 졸업생은 총점 305점 만점에 292점을 기록하며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2021 치기공학과 국가시험을 앞두고 2020 국시 수석자인 심형인 졸업생을 만나보았다.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에 경사가 났다.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는 2020년 11월 28일 치뤄진 제48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서 수석합격자를 배출했다. 주인공은 치기공학과 17학번, 심형인(2021년 졸업) 졸업생이다. 심형인 졸업생은 총점 305점 만점에 292점을 기록하며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2021 치기공학과 국가시험을 앞두고 2020 국시 수석자인 심형인 졸업생을 만나보았다.

①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치기공학과 17학번 심형인입니다. 작년에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치과기공소에서 기공사로 근무중입니다.

② 전국 수석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는데, 이토록 우수한 성적을 거두리라 예상하셨나요?

-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시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내가 뭘 실수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수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얼떨떨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③ 국시 수석이라는 결과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후의 진로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국시 수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부모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시고 교수님과 친구들로부터 축하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국시 수석을 했다고 해서 어디에서 일하자고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처음 입사 지원을 한 곳에서 면접을 볼 때 바로 일을 시작하자고 하셔서 현재까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이나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국시를 준비하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 국가고시는 과목도 많고 내용이 많아서 먼저 요약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정리본에 모의고사 오답노트를 합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실기를 미리 준비해서 완벽하게 끝내놓은 후에 이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코로나로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강이나 모의고사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을 짜고 계획적으로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⑤ 학과가 지원한 국시 커리큘럼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고, 그 것이 도움이 되셨는지, 아쉬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치기공학과에서는 매주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실기와 이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내가 어느 부분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매주 같은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고시를 볼 때 긴장이 덜 되었습니다. 특히 실기특강의 경우, 중요한 점들을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신경쓰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시간에 맞춰 미리 연습해볼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많이 바뀌면서 특강이 조금 급하게 진행되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⑥ 마지막으로 올해 국시를 응시하는, 앞으로 응시할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국시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힘든 점이 많겠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 하고 국가고시 시험 당일에도 너무 긴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76년 신홍보건전문학교에서 시작한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는 해가 지날수록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4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후로 2017년~2018년 2년 연속 '전원응시 전원합격'의 쾌거를 이루고, 수석합격자가 배출된 2020 국시에서는 전국 평균 합격률 83.4%를 훨씬 웃도는 약 9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비단 치기공학과에만 그치지 않는다.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에 소속된 타 학과들 역시 전국평균을 크게 웃도는 국시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4년제 지적·토지관련 전문학과로서 지적(地積)과 부동산에 관한 전문화된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가지고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 국토정보공사 등 관련 기관에 매년 수많은 공무원, 공사 합격생을 지속적으로 배출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드론, 메타버스(metaverse)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교과목을 도입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행정학과 김승욱교수는 “토지행정학과에서 그동안 공무원, 공사 합격생들이 많이 배출된 것에 덧붙여 이번에 최상위 전문직이라고 평가받는 감정평가사 합격생이 배출된 것에 대해 교수로서 제자들의 성취가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향후에 졸업생들 중에 감정평가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1차 시험을 면제받아 2차 시험에 합격하여 감정평가사가 된 졸업생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치현 편집장〉

토지행정학과 졸업생,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시험합격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졸업생인 15학번 오시원 동문이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부동산 고시라고도 불리며, 2021년 기준 1차 합격률 평균 36%, 2차 합격률 평균 16% 정도로 실제 고시 급에 해당하는 시험 난이도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높다. 부동산의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중에서 국가에서 정하는 공시지가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조사와 평가를 통해 산정되고 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유형·무형 자산들의 경제적인 가치를 추정하여 세금, 부동산 수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개발 활동 등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문직 중에서도 열 손가락 내에 꼽히고 있다.

토지행정학과 졸업생인 오시원 동문은 “토지행정학과 재학 시절 감정평가사 시험에 필요한 과목(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 토지공법)들을 수강하며 시험 준비를 했다. 그리고 졸업 후 학과 교수님들의 격려 속에 공부에 열심히 매진한 덕에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말했다. 오시원 동문은 앞으로 현직 감정평가사인 겸임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여, 향후 근무할 감정평가 법인을 선택하고 감정평가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택트 시대 신한대학교 청년일자리센터, 취업난의 새로운 해결책 ‘신한YOU’

‘신한YOU(Youth Opportunity Uijeongbu)’ 플랫폼 구축
언택트 시대 대비, AI면접/자소서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춘 PC, 모바일에서 사용이 편리한 반응형 웹 구성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 될 취업 플랫폼으로 폭넓게 활용, 취업난 극복 기대

2021년 현재,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다. 특히 올해 청년층의 취업률은 41.3%로 전년 대비 2.5%가 감소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한대학교 청년일자리센터는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정부 지원 워크넷 활용 및 의정부시 일자리센터 채용정보, AI면접/자소서, 온·오프라인 상담, 직무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 신청 등 취업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는 ‘신한YOU(Youth Opportunity Uijeongbu)’ 웹서비스를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했다.

‘신한YOU’는 최근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최신 채용 트렌드에 맞춰 AI면접솔루션과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AI면접솔루션은 직업, 기업, 직무에 관련된 1만 여개의 기술면접 질문과 AI면접 기술질문을 제공한다. 청년들은 기술질문으로 실전에 대비한 면접연습이 가능하고, AI가 면접을 실시 간으로 분석하여 분석내용을 종합리포트로 제공받아 면접에 대한 평가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직업심리검사 실시·해석, 채용정보 제공, 입사서류·면접컨설팅, 진로설정 직무탐색 등의 서비스가 있다. 또 맞춤형 취업진로상담을 통해 상황과 필요에 맞는 1:1 맞춤형 취업진로 상담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1:1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으로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취업에 대한 AI면접, 자기소개서 분석 외에도 스펙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직무 아카데미를 열어 특강과 자격증 취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도 진행했다. 지난 5월 빅데이터분석실무, 6월 ACA포토샵, 7월 스트레드시트실무, 8월에는 프레젠테이션실무를 진행했다. 그리고 입사서류 작성부터 우수기업 지원까지 온라인 취업역량강화 캠프를 실시하여, 온라인 교육을 5월, 7월, 8월, 10월에 각각 진행했다. 또 언택트 시대가 심화되어 온택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사회 트렌드에 맞게 글로벌 e커머스 수출 마스터 양성 교육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센터장은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이상 청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최신 취업 정보와 채용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 받고 비대면 AI면접 서비스를 구축했다”며 “신한YOU’는 청년일자리센터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정보, 채용정보, 정부 지자체의 취창업정보 등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취창업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취업 플랫폼으로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신한대학교 재학·졸업생 및 의정부시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월에 창설된 청년일자리센터는 의정부시 청년, 신한대학교 재학생·졸업생 대상 취·창업 on-offline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취창업정보 포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맞춤형 지원 서비스(Care)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 청년들의 커리어(Career)를 관리·지원하여 플랫폼을 운영, 검증된 우수 인재(Certificated) 배출을 통해 생태계 조성 3C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치현 편집장〉



나의 MBTI가 궁금하다면, 학생상담센터로!

-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MBTI 성격유형 검사 서비스
- 재학생 누구나 상시 상담 가능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16가지 성격유형 검사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MZ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타인보다 '나'를 찾는 방법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16가지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나와 가장 잘 맞는 유형을 알아보고, 그 유형과 내가 얼마나 잘 맞는지 비교하고, 친구들과 나의 성격유형을 비교하는 것이 MBTI 검사 의 큰 재미라고 할 수 있다. MBTI 검사는 전문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MBTI 전문검사를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신한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하고 있다.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MBTI 성격유형 검사는 학생상담센터 전화 문의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화로 신청 의사를 밝히면 문자로 전송되는 네이버 폼에 접속하여 원하는 상담과 상담 시간대를 입력하면 된다. 상담은 개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혼자서 집중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일을 통해 링크로 전송된다. 상담자는 심리검사에 필요한 고유 인증키를 전송받고, 어세스타 온라인 심리검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MBTI 심리검사의 경우 15~20분 정도 소요가 되며, 160여 가지의 문항을 통해 진행된다.

상담자들이 MBTI 검사를 할 때, 자신의 진실한 성격보다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성격 결과가 나오기 위해 고민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나'를 알기 위한 상담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MBTI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문가들이 MBTI에 대해 하는 흔한 오해가 MBTI에도 좋고 나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가지 대극으로 구성된 4가지 선호지표 중 어느 한쪽은 좋은 성격을 가진 성향이고, 반대 유형은 나쁜 성격을 가진 성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모두 오해이다. MBTI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전혀 없으며, 네 가지 선호지표는 마치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방향일 뿐이다.

상담자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완료하면, 완료한 검사 결과가 학생상담센터의 전문가에게로 전송된다. 전문가는 학생들이 작성한 검사지를 기반으로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한 후 결과 해석지를 상담자들의 메일로 전송한다. 상담자는 전달받은 해석지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 결과를 일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석지를 분석하며 자신의 성격유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 들을 수 있다.

전문가와 해석 상담은 여러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전문가는 상담자가 MBTI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거나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가는 상담자에게 MBTI 성격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한 후 4가지 선호지표를 보고 각 선호지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 후 4가지 선호지표를 종합해서 나온 자신의 유형에 관해 설명한다.

4가지 선호지표를 통해 나온 유형도 그 유형이 자신을 완전히 표현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해당 성격유형이 나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에 따라 선호지표를 분석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자신의 성격 유형을 분석할 때, 자신의 성격유형에서 개발해야 할 점 또한 같이 알려주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16가지 성격유형 검사 MBTI는 신한대학교 학생들이라면 재학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상담가능하다. 학생상담센터에는 MBTI 검사 이외에도 개인의 성격·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LCSI 성격검사, 개인의 성격특성 및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MMPI-2 다면적 인성검사 등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가 있다.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여러 가지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나'를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윤지 기자〉



창의력이 빛을 보는 순간, '신한 장보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소유자 인재 육성
'아이템'이 아닌 '아이디어' 위주 평가 창업 경진대회
'노약자를 위한 지능형 보행 보조기' 아이디어 발명 후 시제품 완성



2021년 5월 14일, 신한대학교 취창업지원처가 주관한 <신한 장보고 창업아이디어 상반기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참신하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창업 인재를 찾고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창업자를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에 펼쳐진 창업 경진대회는 변형된 주제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그동안 '아이템'에 초점을 맞춰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위주의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는 초기 창업에 부담을 느낀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취창업지원처 김사랑 담당자는 "이번 대회는 재학생 누구나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행이 가능한 경진대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학점, 경진대회, 특강, 입주기업, 동아리 등)와 비교하여 무난한 참가율을 예상했던 취창업지원처는 쏟아지는 참가자로 인해 접수 기간을 늘려야만 했다. 학생들의 원활한 참가를 위해 2021년 7월 27일(총 6회)에 마치고 예정되었던 대회는 3회차 추가된 8월 18일로 변경되었다.

경진대회는 서류심사 및 아이디어 발표 등의 단계를 거쳐 심사되었다. 여기에는 참가팀의 사업 준비와 보유 역량, 창업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타당성, 창업계획(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장분석이나 기술분석, 상권 분석, 시제품 제작의 평가 기준이 속해 있다. 회차마다 한 팀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9회 차 '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장 우수한 한 팀이 상장과 장학금을 받는다. 성과 발표회는 기존 경진대회 대상 수상팀만 참가하여 그간의 아이디어 진척도 등을 평가하는데, 진행방식은 기존의 경진대회와 같다.

그 결과 제3회차엔 'ESC' 팀의 '노약자를 위한 지능형 보행 보조기', 제5회차엔 '라이프리 편' 팀의 'Auto drug assist machine', 제6회차엔 '히플' 팀의 'Clicker', 제8회차엔 'Ad Light' 팀의 '생활 밀착형 자율제어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매체'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다양한 참가자 중 취창업지원처에 큰 인상을 준 팀은 제3회차의 'ESC'다. 본 팀은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세계 곳곳에서 고령 인구가 늘고 있다.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의 10%에서 2050년에는 22%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노약자를 위한 지능형 보행 보조기를 개발하였다. 이는 노약자를 겨냥한 것으로 자동브레이크 기능, 청각이 불편한 사용자 및 주변 보행자를 위한 음성 스피커 기능, GPS 센서를 통한 위치 파악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아이디어 발표 이후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취창업지원처 김사랑 담당자는 <신한 장보고 창업아이디어 상반기 경진대회> 참가자 및 창업 희망 학생들에게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세요"라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창업 아이디어도 전문가의 눈에는 보완할 점이 보일 수밖에 없죠. 이번 대회에서 수상에 실패했다면, 도출된 문제를 보완하여 다음 대회에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비단 대회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창업에서도 자신이 준비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도전한다면 반드시 창업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7년도 이후 청년 스타트업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취창업지원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취창업지원처 김사랑 담당자는 "취업 및 창업 성공을 위해 취창업지원처를 적극 활용하세요"라고 말했다.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취창업지원처에서는 재학생/졸업생을 위해 진로지도,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 취업/창업 지도, 전공동아리, 창업동아리, 대학생 창업지원사업, 창업 경진대회, 취업통계, 온라인 취업 정보 제공, 채용설명회, 취업 박람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하민, 김유진 기자>



학교발전기금 기부자에 기금증서 및 감사패 증정

강성중 총장 ‘50주년기념사업 성공의 초석이 될 고액기부자들에 감사’



신한대학교는 6월 2일 학교발전기금 기부자들에 대한 기금증서 및 감사패 증정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서석원 (주)한빛디앤에스 대표이사, 장성호 장성호세무사실 세무사, 박용배 국가조찬기도회 상임위원, 박효순 나루가온에프앤씨(주) 대표이사, 김찬호 (주)해동시티개발 대표, 장용운 신한대학교 50주년기념사업단 단장 및 신한대학교 실무추진단이 참석한 가운데 증정식이 진행되었다. 믿음관에서 진행된 행사는 고액기부자들에게 기금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30,000,000원을 기부한 국가조찬기도회 상임위원 박용배 장로는 기부목적에 대해 “지금껏 여러 곳에 기부를 해왔는데 특히 교육사업에 관련된 곳에 돈을 기부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신한대학교의 교육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교육체제를 갖춘 학교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신한대학교)학생들은 학교

를 믿고 그에 따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해 주길 바란다. 낙심하지 말자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 앞으로 점점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국가 전 영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국내외 교회와 기독교 선교봉사단체 및 기독교 전문 사역기관과 협력하는 평신도 사역 운동이다. 연례 국가조찬기도회를 주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안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고자 한다.

나루가온에프앤씨(주) 박효순 대표는 “어려서부터 10년 넘도록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내가 나온 학교에 기부해서 시너지 효과가 되어 학교가 잘되면 자랑스럽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또 “잘하는 사람한테 격려하 쓰였으면 좋겠다. 이미 국가에서 여러계층에게 다방면으로 지원을 잘해주고 있기에 학교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줘서 학생들이 신한대

학교를 빛내는 명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명성은 아지랑이요, 부에는 날개가 있고, 인기는 우연이며, 영원한 것은 겸허한 당신의 품성에 있다라는 글귀가 생각한다. 품성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최대 목표이고 누군가 이 말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증 소감을 말했다.

나루가온에프앤씨(주)는 따뜻하고 건강한 맛으로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다. 2008년 ‘광장동 가온’이라는 한식 전문점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나루가온’이라는 이름으로 제조 및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식품회사이다. 박효순 대표는 현재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범죄 피해를 당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후견인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강성중 총장은 앞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용돈을 줄 때 10%는 교회 헌금으로, 10%는 타인에게, 10%는 네 이웃에게 쓰게 한다”는 유대인의 교육법을 언급하며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교육, 미래를 심는 교육을 지향하고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0.1% 유대인들처럼 신한대학교 역시 성공한 유대인을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라는 교육목표를 강조했다. 강 총장은 경기 북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신한대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물 건립에 대해 한국 교

육 및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50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지난 50년이 아닌 앞으로의 50년을 볼 수 있는 신한대학교의 성장 포부를 밝혔다.

〈김석현 기자〉



모두에게 선으로 작용하는 정의가 존재할까?



2021년 10월,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드러났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누군가 짙은 잉크를 사용해 가려버린 편지의 글자들을 현재의 연구진이 해석한 것이다. 편지의 주인은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은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스웨덴 백작 '악셀 폰 페르젠'이다. 덧칠로 가려진 글자들은 "당신 없인 안 돼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사랑하는 당신" 등의 내용이었다. 18세기 유럽 역사·문학 전문가 디드러 린치는 "페르젠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위해 민감한 내용을 가리는 방식을 택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페르젠은 왜 마리 앙투아네트의 편지 내용을 가려야만 했을까?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마리 앙투아네트'(이하 '마리')는 '루이 16세'의 왕비였으나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몰락하였다. 혁명세력은 그녀를 성적 스캔들의 주인공, 국고를 파산시킨 적자부인이라며 비난했다. '마리'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과 오해는 그녀에게 시민들의 감시 아래 불안한 생활을 하게 했으며 사치, 반혁명, 근친상간 등의 거짓 혐의로 단두대에 오르게 했다. '마리'의 연인 '페르젠'은 왕비의 애인이라는 소문에 시달리면서도 '루이 16세' 가족의 국외 탈출을 돕는 등 그녀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마리'의 처형 이후, 그녀와 주고받은 소중한 편지들을 버리지 않는 대신 그녀의 미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한 내용을 덧칠하여 가려야만 했다.

우리가 꿈꾸는 정의는 무엇인가?

뮤지컬 #마리앙투아네트 는 그녀의 삶을 가상 인물인 '마그리드'와의 극적 대비를 통해 보여준다. 작품의 배경은 유럽에서 가장 세련되고 호화스러웠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빈민가 파리 마레지구다. '마그리드'는 사회 부조리 아래에서 혁명을 선도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화려한 무도회가 펼쳐진 궁전에 침입하여 '마리'에게 가난한 빈민가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부족함 없이 살아온 '마리'에게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세상"은 멀게만 느껴진다. 이에 '마그리드'는 '마리'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반대 여론을 조성한다. '마그리드'는 '마리'의 삶을 가까이 감시하면서 악녀인줄 알았던 '마리'가 평범한 여자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빈민가 시민들은 이미 그녀를 단두대에 올릴 준비를 마쳤다. '마리'는 결국 '추기경'을 모함하고 아들과 근친상간을 저질렀다는 거짓 혐의로 처형된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 극빈자들의 삶, 정의라는 이름으로 희생되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극이 진행되는 동안 '여자'와 '외국인'이 강조되는 대사가 여러 번 등장한다.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여성이자 외국인인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향한 것이다. 프랑스 왕좌를 노리는 '오를레앙'은 빈민을 선동하여 '마리'를 비난하고 공격했다. 시민들은 그녀에게 "우리의 나라를 더럽힌 외국인", "심약한 남편을 휘두른 여자", "사생활이 추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 여자"라고 말했다.

'마리'를 향한 시민들의 폭력은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되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혁명의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존재했던 것처럼, '정의'가 누구에게나 선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약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공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고 경계해야 한다. 작품은 '마그리드'의 입을 빌려 질문한다. "한 여자의 몰락과 종말을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꿈꾸는 정의는 무엇인가?"

소녀의 끊임없는 날갯짓, 〈별새〉



2019년 개봉한 김보라 감독의 독립영화 〈별새〉는 한 여중생이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 인 은희로, 은희는 공부보다 만화 그리기를 더 좋아하는 학생이다. 〈별새〉는 주인공 은희를 중심으로 1994년 시대적 상황들을 그리며 전개된다. 이 영화는 커다란 사건이나 사고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은희가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고, 학교에 가고, 가족들과 밥을 먹고 평범한 일상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영화는 이러한 은희의 평범한 일상 속 여러 사회문제와 1994년 시대 사람들이 겪었을 아픔들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잔잔한 장면들 속 그 이상의 내포된 이야기들을 전하며 관객들에게 긴 여운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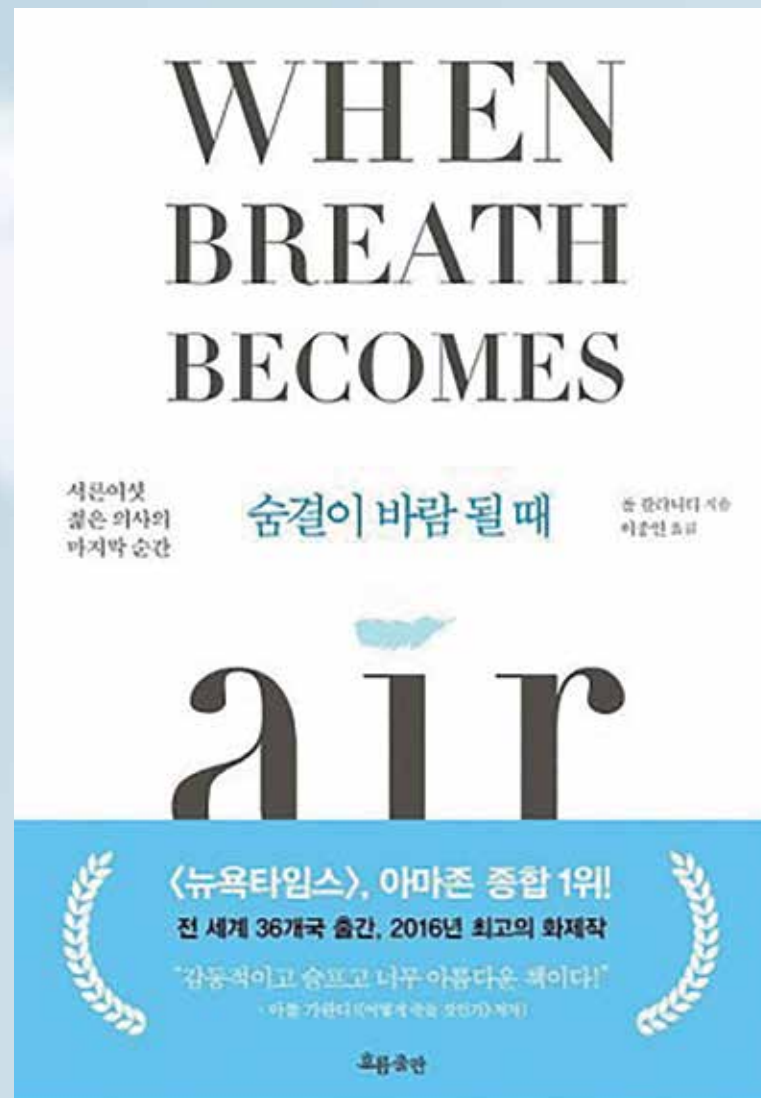
영화 〈별새〉는 앞서 말했듯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다루지 않고 있기에 스토리를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관람 포인트를 이해하고 시청한다면 영화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영화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은희와 은희의 주변 인물들이다. 영화 속에선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외도와 무심함 속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자신의 낮은 학력을 콤플렉스로 여겨 공부를 강요하는 어머니, 학생회장이자 동생을 폭행하는 오빠, 오빠를 미워하지만 신고하지 못하는 은희. 이처럼 영화 속에선 은희를 포함하여 모순적인 인물들이 주로 등장한다. 하지만 커다랗게만 보였던 오빠도, 항상 냉정하게만 보였던 아버지도 사실은 모두 같은 불안한 인간임을 영화를 보며 깨닫는다. 또, 은희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영지'가 있다. 영지는 은희가 다니는 한 문학원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로, 은희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영지와 은희가 밤길을 걷고 있는 중 영지는 말한다. "맞지 마. 누구라도 널 때리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 알았지?" 은희에게 영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담담하게 위로를 건네주는 안식처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지치고 힘든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영지 같은 존재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주변 등장인물들이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 중 하나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영화 속 색채이다. 영화는 주인공 은희의 기분에 따라 전체적인 색감이 변화한다. 은희에게 내부인 집은 어두운 색감으로 표현되고 집과 반대되는 외부인 밖은 밝은 색감으로 표현된다. 은희가 집 밖에서 친구와 있을 때는 높은 채도의 배경들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친구와 헤어지고 부부싸움과 친오빠의 폭력이 가득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영화의 배경은 낮은 채도와 어두운 색감으로 그려진다. 즉, 영화의 전체적인 색감이 은희의 기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물들의 의상색과 성격에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극 중 영지는 검정, 회색 계열의 무채색 옷을 주로 입는다. 이는 영지라는 인물이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임을 강조시켜주는 장치 중 하나이다. 이와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은희이다. 은희는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으로, 영화 속 인물들과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상처받고 갈등한다. 은희는 주변 인물들에게서 비롯된 잦은 감정 변화에 맞게 입는 의상의 색도 가지각색이다. 어떨 때는 분홍색, 어떤 날은 하늘색, 또 어떤 날은 노란색을 입으며 무채색의 어두운 의상은 입지 않는다. 이것처럼 의상의 색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더욱 도드라지게 해주며, 다양한 색 대비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을 비교하며 볼 수 있는 것이 이 영화의 또 다른 포인트이다.

별새는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새이다. 하지만 별새는 1초의 90번가량의 끊임없는 날갯짓을 하며 세상으로 나아간다. 별새는 은희다. 은희는 이러한 이별의 슬픔, 다양한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이 영화는 은희의 '불행'이 아닌 '성장'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다. 한 소녀가 느끼는 위태로움을 표현하며 그 소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만든다. 영화는 흔히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잘 따랐던 선생님도, 좋아하던 남자친구도 은희의 곁을 떠나고 은희는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은희의 세상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해서 흘러간다. 우리는 그냥 살아간다. 아픈 상처, 따듯한 위로, 슬픈 이별 등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영화는 조용하게 흘러가지만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기고 따듯한 위로를 건네준다.

서른여섯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 책 <숨결이 바람 될 때>

죽음을 이해하고 싶었던 청년에게 불치병은 완벽한 선물이 아닌가?
죽음을 실제로 겪는 것보다 죽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_숨결이 바람될 때 中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일까. 이 책의 저자 폴 칼라니티는 서른여섯의 촉망받는 젊은 신경외과 의사였다.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면서부터 많은 대학 병원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인생의 전성기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레 폐암을 선고받으며 죽음에 마주하게 된다.

그는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태연히 목도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자, 태연하지 못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며, 그동안 본인이 추구했던 의사로서의 성공 가치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며, 아래와 같은 말을 남긴다.

“암 진단을 받기 전에 나는 내가 언젠가 죽으리라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내가 언젠가 죽으리라는 걸 알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통렬하게 자각한다. 그 문제는 사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죽음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죽음 없는 삶이라는 건 없다.”

인간이 지닌 삶의 관성은 죽음 앞에서 무력해진다. 우스운 표현으로, 급격히 변화한 사람들에게 ‘죽을 때가 됐냐’라는 평가를 하고, 죽음의 공포를 수단으로 인간사회를 통치하는 집단도 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지닌 관성을 버리지 않았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성공 가치들은 과감히 포기하였으나, 대신 새로운 인생의 가치들을 찾아 마지막 삶의 힘겨운 숨결을 거대한 바람으로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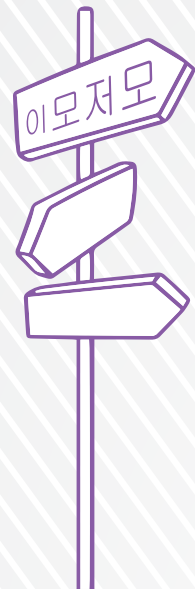
현대인들은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며 눈앞에 있는 성공과 부, 이익 등만을 추구하곤 한다. 하지만, 과연 죽음 앞에서 우리가 본래 추구하던 가치들은 정녕 가치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죽음은 먼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죽음은 언제든 도둑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저자인 칼라니티 역시 ‘젊은이’로 취급되는 30대에 폐암을 선고받고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어떤 가치를 포기하고, 어떤 가치를 새롭게 찾아냈을까? 우리가 죽음에 직면한다면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건 무엇인가. 의사이자 환자로서 수많은 죽음,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까지 목도한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 삶과 가치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게 해준다.

이미 저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죽음에 대한 그의 성숙한 정신세계는 독자들을 사고의 바다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이 책을 통해 무엇이 삶을 깊어지게 하는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민주 기자>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걸 알게 된다.”
브루크 폴크 그레빌 남작, <카엘리카 소네트 83번 >(영시)



신한대학교, '수시모집 역대 최대 지원자 수 달성'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2022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에서 역대 최고 지원자 수 (13,359명)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한대학교는 개교 이후 6년 연속 지원자 10,000명 이상의 지원자 수를 기록 중이며 신입생 충원율도 2020학년도 및 2021학년도 2년 연속 100%를 달성하며 수도권 대학 중 최고 수준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김유진 기자〉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 예비간호사로서의 한걸음, 제2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하다.

지난 21년 12월 2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246명의 예비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캠퍼스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제 2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과 비대면 형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의 행사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간호학과 선후배, 학부모님 및 내외빈들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통해 생중계된 선서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음을 알렸다.

〈김민성 기자〉

신한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 쾌거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충원율 100% 달성하며,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 쾌거를 달성했다.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는 대학 간 치열한 입시경쟁과 계속되는 학령인구의 감소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다.

〈김민성 기자〉



신한대학교 학교법인 신흥학원, 신한대학교의원(청사)과 신한대학교치과의원 개원

학교법인 신흥학원은 법인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시티메디타운에 신한대학교 청사위원을, 신한 메디컬 센터 건물에 신한대학교 호원치과의원을 2020년 4월 개원했다. 신흥학원은 해당 의료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법인의 소속학교인 신한대학교에 기부할 계획이며, 신한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은 법인과 협약한 내용에 따라 의료복지 혜택을 누린다. 학교법인 신흥학원 안현수 이사장은 "신한대학교 청사 의원과 신한대학교 호원치과의원 운영을 통해 법인의 수익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신한대학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료혜택에 앞장서기 위해 개원했다"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제2회 참! 신한 김장나눔 품들이 행사 봉사활동 - 참! 신한 김장나눔“愛” 품들이 -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의 “愛”품들이 '김장 나눔 봉사 활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는 가운데,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경기북부의 주요 시,군(의정부, 동두천, 파주시, 연천군)의 기관들이 자원봉사자(100여 명)로 함께 하였다. 봉사자들은 교직원들이 직접 심어 물을 주고 재배한 배추 2000포기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무채와 갖가지 양념을 넣어 사랑과 정성으로 김장을 하였다. 담근 김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100여 개의 다문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시설기관에 나눠주었다. 우리의 가족과 같은 소중한 이웃을 생각하고 꾸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

〈김민주 기자〉



신한대학교 · 양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3월 14일, 신한대학교와 양주시는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윤재 신한대학교 그린에너지융합연구원 부원장, 백은구 양주시 환경관리과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에 선도적 역할 수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내용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상호 소통, ▲경기북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 발굴·지원, ▲환경 관련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폭적 지원 등의 상호 공유를 담고 있다.

<김민성 기자>



신한대학교-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신한대학교는 지난 17일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전공인 미래스 포츠융합학과와 교육과정을 특성화시켜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LCK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상위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운영을 총괄하는 독립법인이다. 협약서에는 ▲이스포츠 전문인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 강화 ▲전공 교육과정 공동 개발 ▲현장실습, 인턴십 등 산학협력 체계 구축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성중 신한대 총장은 “LCK와의 협약을 통해 이스포츠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첨단 영상분야 등의 진로를 열어주는 한편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여 새로운 한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신한대학교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지난 2월 17일 신한대학교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2040 탄소중립캠퍼스 플랫폼 연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상현 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에너지 수요관리 및 에너지사업 공동추진, 대학의 융복합 스마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기관 간의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강성중 신한대학교 총장은 “신한대학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체계로 탄소중립캠퍼스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고 RE100 및 EP100으로 국내 그린캠퍼스 운동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장은 “협약을 통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신한대학교의 탄소중립캠퍼스 플랫폼 연구 및 사업 추진으로 공동목표인 2040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민성 기자>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졸업생 2명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최종 합격

간호대학 박민희(2020년 졸업), 안태식(2019년 졸업) 졸업생이 최근 실시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에 최종 합격했다. 두 졸업생은 전공 교육과정을 통하여 간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공직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양승희 간호대학장은 “전공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으로도 간호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신한대 청년일자리센터, 2022년도 의정부시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 계속 진행 - 2022년도 위·수탁 사업비 작년 대비 2배(21' 2억 → 22' 4억) 증액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와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가 관·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신한대학교 청년일자리센터’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2년도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전년 대비 2배 증액인 4억을 교부받아 2022년도 청년 일자리 플랫폼 사업 2차 연도를 계속 이어간다.

청년일자리센터는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행정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거주 청년 및 신한대학교 재학생·졸업생으로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단, 창업은 만 39세 이하 예비·초기 창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신한YOU(www.shyou.co.kr)에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신청 및 취(창)업 성공축하금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신한대학교 청년일자리센터(031-870-3042~304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 기자>

대학발전기금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2~5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유비	김정호	성기명	이영우	정푸	황만수	김영일교육컨설팅(주)
강근호	김정훈	손계선	이옥현	정한별	황보강	꿈꾸미니케이션
강기봉	김주신	손호	이웅배	조규봉	황보상원	나비수
강민준	김준석	송운홍	이재은	조성심	황정호	농협은행의정부부지부
강성현	김지명	송진희	이정원	조성윤	황희숙	동남도서 주식회사
강수철	김지윤	수단	이정훈	조성재	(사)한국수입자동차협회	미니스탑
강의	김진경	시경봉	이중탁	조숙희	(주)국민은행 회릉역지점	뷰티헬스전공 6대 학생회 '늘해당'
경희혁	김현옥	신경환	이주현	조영숙	(주)다비치안경체인	송내교회
고영아	김현우	신유지	이찬주	조우택	(주)메티소프트	승진통신(주)
공령명	김후환	신현곤	이청재	조우하이랑	(주)미래인증교육컨설팅	신한대학교 총동문회
곽신로	김희선	신현정	이충환	조운재	(주)북큐브네트웍스	씨앤디아이 주식회사
권영길	남궁혁	아나스타샤	이태정	주영훈	(주)브릿지번역	아스카메디칼(주)
권영일	남병철	양동진	이현	진가훈	(주)서울환경	아이토리야
권영진	당충흠	양원원	이현비	진선범	(주)소프트피아	에스피엘아이에스코리아
권운영	류이희이	양천우	이현숙	진원재	(주)슬데스크	에이스테크
권원기	문희남	어응수	이현중	차명순	(주)스타비전	에이에스미싱
권태순	민원표	오병칠	이효상	최병범	(주)아모스프로페셔널	엠에스메디캠프
김기순	민철기	오이균	임경석	최병호	(주)약손명가 수유점	와이디컴퍼니
김남용	박광용	왕려	임승희	최승구	(주)에이에스피엔	인테크 치과기공소
김동섭	박돈신	왕로연	임애련	최에스더	(주)엔투스루션	주)천안메디칼
김명준	박성모	우경갑	임영진	최용수	(주)엠엘에스에스	주식회사 임포유
김문	박소진	유수평	임진홍	최지연	(주)오토기기	주식회사 잉크와오피스
김문수	박승균	유양	임호진	최진영	(주)와이즈에스티글로벌	주식회사 지오맨
김미소	박영심	유은경	장운태	최한용	(주)우리강산시스템	주식회사미르테크
김미숙	박은영	유창리	장인봉	최화식	(주)의정부기아자동차서비스	피닉스비전
김민정	박진우	이광규	전미숙	최희선	(주)정미작소	하이트진로홀딩스주식회사
김범중	박현수	이규태	전영주	한경희	(주)제이앤비솔루션	한방유비스 주식회사
김보혁	박현철	이금숙	전유찬	한수범	(주)제이와이시스템	현대자동차(주)
김봉석	박호균	이대성	전현주	한왕모	(주)청담이앤티크	
김상현	방가인	이대홍	정선도	한태희	(주)청운시스템	
김소민	배시애	이동규	정성균	형성우	(주)태건비에프	
김수경	배영금	이래곤	정우용	홍동희	(주)포에듀	
김순남	변희진	이명호	정은혜	홍성희	(주)학술정보	
김연아	서장훈	이상록	정인교	홍수희	(주)한국정보인재개발원	
김인아	서종원	이상용	정지혜	홍승예	DK메디칼솔루션(주)	
김재용	성금단	이승영	정치	홍승희	경기도치과공사화	

자리는 신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인적사항	필수	☐ 동문 ☐ 재학생 ☐ 학부모 ☐ 법인(기업) ☐ 일반인(비동문) ☐ 교직원 ※ 중복체크 가능					
		성명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필수항목은 법인세법 제24조 / • 소득세법 제16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며, 기부영수증 미 발급 기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후면 참조)					
	선택	연 락 처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 장 명			부 서 명		
					직 위		
		E-mail					
우 편 물 수 령 지	☐ 자택 ☐ 직장	기 추 천 인		*여러명일 경우 학과명 또는 부서명 기재요망			
약정	총 액	금()원 (₩)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기 부 금 용 도	☐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기금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무통장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입금자명	☐ 기부자명과 동일 ☐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 자동이체(CMS) / 휴대폰결제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http://m.shinhan.ac.kr/) 하단 ‘발전기금’ 메뉴 클릭					
	☐ 교직원급여이체	별도의 급여이체 동의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필히 √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2~5 (Fax 3169)
- 우편 :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22. 05/ 201호

편집후기

김민주 기자

코로나 영향으로 정말 오랜만에 기사와 편집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다. 내가 신문에 발 담은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고, 내년이면 4학년이 된다. 마지막 특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더욱 의미있게 다가오는 특특이다.

김석현 기자

201호를 만들면서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보람찬 순간도 많았다. 직접 현장에 나가 고생을 통한 취재 후엔 뿌듯함을 느끼고 수정사항이 있어 기사를 쓰고 지을 땐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모른다. 모든 것엔 제한적 상황임에도 잘 이끌어준 이선민 교수님이 있었고, 함께 고생했던 모든 기자에게 감사드린다. 학생기자로서 활동은 끝났지만 김석현 기자로의 도약은 이제 시작이다. 신문사에서의 2년을 기억해 나중에 기자가 되었을 땐, 언젠가 이 편집후기를 보고 씨익 웃을 수 있기를 바라 본다.

김유진 기자

올해 신문에 들어와 기자로서 처음으로 기사작성에 참여했다. 기사를 쓴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기자분들과 이선민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김치현 편집장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위주의 교육과 행사가 이루어져, 특특을 완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올해는 나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고,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경험인 되는 해였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는 항상 이선민 교수님과 동료 기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번 특특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올해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좋은 기사들을 특특에 실고 싶다.

조수빈 기자

저번 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한특특도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어 아쉬웠지만, 이번 호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를 작성할 때면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 느낄 때도 있지만, 직접 학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기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편집후기를 작성할 때가 되면 '한 학기가 끝나가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다음 학기에는 더 노력하는 내가 되길 다짐한다.

정윤지 기자

신한특특에 첫 번째 기사를 실은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흘러간 시간만큼 신한대학교 내·외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3년 전도 그랬듯, 신한대학교의 학생들은 여전히 빛난다. 신문에 있는 기간 동안 밝은 신한대학교를 담을 수 있는 기자가 되기를 염원한다.

최하민 기자

신문사 활동을 시작하지 어느덧 2년째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해 살짝 방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늘 도움을 주신 이선민 교수님, 편집장님, 선배기자분들이 계셨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다음 학기엔 더 완성도가 높은 기사로 보답하고 싶다.

김민성 기자

'복학할 재미면 코로나도 종식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군 입대를 했고, 시간이 지나 복학을 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았고, 비대면 환경의 교육 환경은 유지되고 있었다. 지난 2년간의 공백기와 오직 대면 환경 대학 생활을 했던 나로서는 이래저래 많은 적응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조희지 기자

처음 편집후기를 쓰던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4년이 흘러 마지막 편집후기를 작성하고 있다. 신한대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가도 신문사에서의 4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동안 힘든 일, 뿌듯한 일들을 함께해준 동기, 선배, 교수님들께 감사하다.



신한50. *Made in 0!*

오래된 것이 비워질 때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

0은 무한한 가능성, 궁극적 혁신을 의미하는 아이콘.

신한대 개교 50주년 슬로건, 신한50.made in 0!은 오래된 것이 비워질 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로써

지난 50년의 성취를 가슴에 묻고, 제로 스타트 하자는 선언이다.

